

우에 심하고, 따라서 예측가능성에서는 많은 제약점이 따르게 된다. 잘못하면 Pseudo-puzzle 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즉 문제해결에 있어서 전혀 상반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심리학 이론 전체로서 체계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각 소이론 별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뿐이다.

여섯째, 상반된 문제해결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정치학교육에 있어서 상반된 교육기능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이론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 교육에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3

그러면 정치심리학의 소이론들이 갖고 있는 Paradigm적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Kuhn이 제시한 Paradigm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첫째인 Metaphysical 한 성격의 각도에서 보면 정치심리학 분야는 크게 4가지 범주의 Paradigm이 있고 그것은 유기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Kuhn이 제시한 Paradigm의 두번째 의미인 Exemplar적 성격을 제외한 Disciplinary Matrix의 성격, 특히 Sociological Paradigm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일반법칙이나 설명의 각도에서 보면, 큰 분야별로 소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법칙이나 일반화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정확성·인과성·간결성·일반성의 면에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각 소이론들 속에는 이러한 요소가 있다. 특히 소이론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는 학습이론만이 비교적 잘 해당될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심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Kuhn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세번째 유형인 예題(Exemplar)로서의 Paradigm개념에 비추어 보면 정치심리학 이론 전체나 혹은 분야별 이론들이 Exemplar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소이론들이 Exemplar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교육적 측면에서는 전체가 동시에 정치심리학이론으로 포함되겠지만, 전문연구를 위해서는 분야별 소이론들이 Exemplar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政治心理學 이론의 개개의 소이

론들이 Kuhn의 Disciplinary Matrix(Exemplar 포함)로서 Paradigm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치심리학 이론의 전반적인 상태는 Masterman이 제시하는 Multi-paradigm의 위치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또한 각 소이론들이 갖고 있는 예측의 정확성·인과성·간결성·일반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론들은 Paradigm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다는 좀 더 낮은 Metaphor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Landau, 1972, pp. 221-222)

이와같이 정치심리학 이론의 Paradigm적 지위를 Multi-paradigm 또는 Metaphor로 규정하고 나면 Kuhn의 과학사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학Paradigm의 혁명적 변화의 문제는 자명해진다. 정치심리학에서 Paradigm의 급격한 변화는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정치심리학은 Kuhn의 정상과학이라는 용어에 의해서도 규정할 수 없다. 즉 소이론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이것이 정치현상의 설명에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정상과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기존에 있는 소이론들에 입각하여 사실의 확인·검증·이론의 수정활동이 계속된다는 면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공통적 Paradigm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치심리학 이론을 Kuhn의 정상과학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1969년 D. Easton이 그의 정치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 Post-behavioralism을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1979년 Wahlke가 정치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는 Pre-behavioralism을 주장하고 있어 재미있는 대조를 이룬다.

쿤의 생각과 言語理論

서울대 言語學科 李 廷 玟

이 논문은 (1) Kuhn의 과학사술에 대한 생각에 언어이론 쪽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 Kuhn의 과학사술방식이 언어학의 발전에 얼마만큼 맞아 들어가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Kuhn은 그의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의 서문에서 언어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생각한 Whorf의 글을 읽었다고 밝힘으로써 영향관계를 시인하고 있다. Sapir-Whorf의 가설에 따르면, 사람의 사고는 습관적으

로 사용하는 자기 모국어의 틀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Sapir 는 각 언어에 그 언어사용자들의 심리적 패턴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고, Whorf 는 각 언어에 그 언어 고유의 형이상학이 숨겨져 있다고 보고 그 언어에 따른 우주의 구조는 바로 그 언어로만 제대로 기술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언어로는 개략적으로만 읊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언어상대성이론은 源流가 Humboldt 로까지 거슬러 올라 가겠는데, Humboldt 는 각 언어가 국민의 정신, 세계관을 담고 있어 언어들 사이에 서로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Kuhn 의 이론바 이론들 사이의 incommensurability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없음)는 위와같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whorf 가설의 언어이론에 입각한 생각이다. Kuhn 은 지난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 사이 또는 새 패러다임 탄생 전의 角逐하는 이론들 사이에는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Kuhn 은 그러한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각기 다른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로 비유하고, 이들 사이의 의사소통문제를 번역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론선택을 위한 중립적인 algorithm 은 없고, 효과적인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동체라는 것인데, 하나의 이론선택을 위해서는 설득의 과정이 있고, 이에 언어문제가 있다. 같은 상황을 달리 보면서도 그 논의에 있어 같은 어휘를 쓰는 두 사람은 incommensurable 한 견해를 가지고 같은 어휘를 달리 쓰고 있다고 Kuhn 은 본다.

번역은 의사소통이 두절된 당사자들에게 서로 상대방의 장단점을 좀 맛볼 수 있게 해주므로 설득과 改宗 두가지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되지만, 반드시 설득이 되지도 않고 되었다 해도 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이론 즉 세계관을 번역한다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박이가 돼야 하는 것이다. 마치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을 중년에 이르러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 새로운 이론에 설득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론을 內面化하여 그 세계 내에 安住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귀화는 안되고 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그 세 이론(즉 언어)을 쓸 수 있을 뿐이다.

이론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견해는 놀랄만큼 현실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차이에 비유한 점 등은 놀라운 직관이라 하겠다. 바로 이 점은 Chomsky 가 主導한 變形生成文法의 언어습득이론을 연상케 한다. 內面化된 지식으로서의 모국어 습득과 그것이 끝나고 나서의 외국어 습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려 한 대목이 연상된다.

合理性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언어이론에 따라 보편문법에의 추구, 思考의 보편성과 보편의미론에의 탐구 및 이에 발맞추어 보편적 認知과정(proto-type 등에 의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Whorf 가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거의 없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모든 학문 분야와 모든 이론이 논리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적인 측면,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묶이고, 진리를 향해 基底原理를 찾는 목적면에서 공통점을 고려할 때 incommensurability에의 지나친 강조는 이 모임의 대화조차 회의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 염려되며, 대화의 단절을 조래할 염려가 있고, 지나친 혁명에의 고치는 과학 각 분야의 차분한 水準向上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물론 Kuhn 의 생각이 과학의 작업 및 운영면에서 볼 때에 현실적인 공감을 자아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生成言語理論과 Kuhn 의 과학이론에서 다 같이 直觀(intuition)과 暗黙의 지식(tacit knowledge)을 중요시함을 지적할 수 있다. Chomsky 는 사람이 자기 母國語를 하는 능력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고, 分析的, 明示의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직관에 의해 문법적으로 말하고 알아듣는다고 말한다. 한편 Kuhn 은 과학자가 패러다임을 직접 들여다 보고 과학을 함으로써 자연의 成分으로서의 과학의 개념들을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결과하는 것이 암묵적 지식이라고 한다. 물론 Chomsky 가 母國語 사용자의 직관과 이를 분석적으로 明示의으로 규격화하는 언어학자의 임무를 구분함은 당연하며 Kuhn 도 과학자의 과학작업과정의 암묵적 지식 및 직관과 이를 분석하여 그 속성들을 밝히는 과학 인식론자·과학철학자의 임무를 구분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언어학발전은 구조주의이론이 Chomsky 의 革命的인 生成理論의 대두로 쇠퇴하고, 후자가 가히 패러다임을 형성했다고 할만큼 生成理論에 입각한 언어학계의 발표논문 및 교과서의 속출을 보게 되었다.